

##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 차이

### The Difference in Ethical Sensitivity of Korean Badminton Coaches and Athletes for Match-Fixing

조은혜 (한국교원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연구원) · 박선영 (육군사관학교 시간강사) · 오상은 (한국체육대학교 박사과정)

Eunhye J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unyoung Park Korea Military Academy · Sang-Eun Oh, Korea National Sport Univ.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이 경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 중 어떠한 행동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지도자와 선수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배드민턴협회에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 95명과 중·고등부, 대학부, 실업팀 선수 32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MS-Excel을 이용하여 정리하였으며, IBM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했던 문항들은 문항 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의 Rasch 모형 및 차별기능문항방법(DIF:Differential Item Functioning)을 적용하기 위하여 Winsteps 3.6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한 결과, 지도자 집단은 8번 문항과 9번 문항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번 문항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집단은 10번 문항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4번 문항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도자 집단과 선수 집단 간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의 비윤리적 행동 중 3번 문항, 4번 문항, 15번 문항은 지도자 집단이 선수집단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번 문항, 11번 문항, 12번 문항, 14번 문항은 선수집단이 지도자 집단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d=-1.126$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들의 경기상황에 따른 윤리적 수준을 확인하고 지도자와 선수들의 윤리적 수준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윤리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sensitivity level for match-fixing sports in badminton coaches and athletes. Specifically, badminton coaches and players were confirmed to be sensitive to any of the unethical behaviors that may occur in the match, and differences in ethical sensitivity between coaches and athletes were compar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95 coaches and 327 athletes registered as athletes with the Korean Badminton Association and who belong to middle schools, high schools, universities, and vocational team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were organized using MS-Excel,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BM SPSS 25.0. The concept of Rasch model and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of item response theory(irt) was applied, and Winsteps 3.65.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hecking the ethical sensitivity of badminton coaches and players, the group of coaches was found to be sensitive to Q8 and Q9 and insensitive to Q4. The athletes' group was found to be sensitive to Q10, and they were found to be insensitive to question 4.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ethical sensitivity between the coach group and the player group, Q3, Q4, and Q15 out of 15 unethical behaviors showed that the coach group was more sensitive than the leader group.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d=-1.126$ ).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heck the ethical level according to the game situation of badminton coaches and athlete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ethical level between coaches and athletes. Therefore, customized ethics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Key words : Badminton, Coaches, Athletes, Match-fixing, Ethical Sensitivity Level

## I. 서론

승부조작은 국내외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1919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1969년 일본 프로야구, 2009년 짐바브웨 축구 등에서 승부조작이 나타났으며(이상대, 2021), 국내에서는 2011년 프로축구, 2012년 프로야구와 프로배구, 2013년 프로농구까지 우리나라 대표 프로스포츠현장에서 승부조작이 발생했다(박찬민, 김희연, 2013). 배드민턴도 예외일 수 없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고의패배’로 인한 승부조작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심판을 매수하는 등의 금전적 이익이 오간 것은 아닌 자국과의 경기를 피하기 위해, 더 나은 대진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고의로 패배를 한 것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서는 이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경기에 나서는 행위’,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결과 고의패배를 한 중국 2명, 한국 4명, 인도네시아 2명의 선수를 실격 처리하였다(Park, Choi, Cho, 2016).

대체로 선수와 지도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위를 승부조작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전민수, 박재현, 최창환(2017)은 선수들은 개인과 팀의 경기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위나 예선 통과 후 남은 예선 경기에서 후보 선수를 출전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승부조작 관련 둔감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승훈(2017)은 금전이 개입되지 않은 승부조작의 상황에서는 초/중/고 선수와 지도자가 대회 성적을 이유로 고의패배하는 방법이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대다수의 선수와 지도자가 고의패배를 행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패배를 포함한 승부조작 행위는 스포츠의 대표적인 속성인 ‘결과의 불확실성’을 저해시키는 행위로 스포츠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며(박성주, 2016), 고의패배는 승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정당한 경기결과라 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이다(채승일, 2014).

스포츠의 승부조작과 같은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학계 및 현장에서는 선수들이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스포츠 윤리교육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김성일, 2019). 청소년기는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성숙을 포함한 변화와 발달과정을 겪는 과도기로 이 시기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지도 및 교육이 그 어느 시기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정우진, 권상수, 2007). 즉, 지도자의 윤리성은 선수의 윤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지도자의 윤리의식이 선수의 승부조작 관련 가치관 및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김범(2012)은 지도자의 감성적 리더십이 선수의 자기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사회적인식능력, 관계관리능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원형진(2014)은 지도자의 멘토링은 선수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도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선수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행동을 이끌며, 지속적인 윤리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김용구, 2020; Trevino, Hartman, & Brown, 2000). 반면, 지도자가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지도자의 윤리적 수준을 확인하고 선수의 윤리적 수준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종목에서 지도자와 선수의 승부조작 관련 윤리적 민감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경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부조작 관련 비윤리적 행동 중 어떠한 행동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지도자와 선수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배드민턴 지도자 집단과 선수 집단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 결과는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에 정립 및 지도자와 선수의 승부조작 관련 윤리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료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이 경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 중 어떠한 행동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지도자와 선수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데이터는 본 연구진이 수집하였으며, 국내 배드민턴 선수 데이터는 박선영, 장윤창(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대한배드민턴협회 지도자 등록) 전체 711명(대한배드민턴협회, 2020)과 국내 배드민턴 선수(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실업부) 전체 1,495명(대한배드민턴협회, 2020)으로 확인되었다. 95%의 신뢰수준과 10%의 표본오차 수준으로 표본크기를 산출한 결과 지도자 85명, 선수 91명이 요구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무응답 및 응답거절을 고려하여 지도자 12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응답거절을 제외한 지도자 114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박선영, 장윤창(2021)이 수집한 선수 327명 데이터를 최종 연구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지도자 114명의 표본대상은 모집단에 해당하는 711명의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에 대한  $\pm 8.42\%p$ 의 표본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선수 327명의 표본대상은 모집단에 해당하는 1,495명의 국내 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한  $\pm 4.79\%p$ 의 표본오차를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는 구글(Google)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을 요청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체육대학교 임상시험 윤리심의위원회(IRB No. 20210817-117)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상	분류	사례 수	비율(%)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소속	청소년 (초·중·고)	101
		성인 (대학·실업)	13
		전체	114
	성별	남자	52
		여자	62
		전체	114
	국가대표 지도경력	있음	48
		없음	53
		전체	114
국내 배드민턴 선수	소속	청소년 (중·고등)	180
		성인 (대학·실업)	147
		전체	327
	성별	남자	133
		여자	194
		전체	327
	국가대표 경력	있음	187
		없음	140
		전체	327

##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수행되어온 스포츠 승부조작 민감도 연구(전민수, 박재현, 최창환, 2017; 임정우, 2018; 전민수, 이지용, 윤효준, 2020)를 기반으로 배드민턴 경기상황에 맞춰 재구성된 박선영, 장윤창(2021)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배드민턴 경기상황에 맞춰 구성된 설문문항은 사전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채증을 감량하기 위해 이뇨제(라식스)를 복용할 수 있다’라는 문항과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의로 상대방의 주발을 가격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이 제거된 문항으로 배드민턴 경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은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최종문항은 배드민턴 승부조작 윤리적 민감도에 대한 15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징(성별, 연령, 경력(지도 및 선수경력), 소속, 국가대표(꿈나무, 주니어, 청소년 등 포함) 지도 또는 선수경험) 6문항, 승부조작 교육에 대한 3문항을 포함한 전체 24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배드민턴 경기의 윤리적 민감도에 대한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배드민턴 경기의 윤리적 민감도에 대한 문항

1.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
2. 좋은 대진 상대를 위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3. 동료의 진학을 위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4. 예선 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5. 경제적 이득을 위해 경기를 조작할 수 있다.
6. 보상과 관계없이 경기에서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7. 심판의 오심을 알고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다.
8. 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할 수 있다.
9. 협회임원에게 부탁하여 대진 혹은 경기순서를 임의로 비꿀 수 있다.
10.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규정에 위반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1. 아무런 이유 없이 경기에서 기권할 수 있다.
12. 경기 전 의도적으로 상대팀 대진을 훑쳐볼 수 있다.
13. 경기 전 승부조작을 계획할 수 있다.
14. 경기 전 상대 후배에게 패배를 강요할 수 있다.
15.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고의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 3. 자료처리

이 연구는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하고 지도자와 선수 집단 간에 윤리적 민감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수 327명을 대상 한 박선영, 장윤창(2021)의 설문결과를 제공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MS-Excel을 이용하여 정리하였으며, IBM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들은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의 Rasch 모형 및 차별기능문항방법(DIF:Differential Item Functioning)을 적용하였으며, Winsteps 3.6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최초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의 Rasch 모형은 인간의 지능검사에서 얻어진 이분형 자료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개발(Rasch, 1960)되었으며, 이후 인간의 지능검사에서 얻어진 다양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왔다(정혁, 2005).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난이도를 표현할 때, 피험자의 능력은 ‘높다’ 혹은 ‘낮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항의 난이도는 ‘어렵다’ 혹은 ‘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높다’ 혹은 ‘낮다’라는 표현을 ‘민감하다’와 ‘둔감하다’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피험자들의 응답을 해석하자면, 배드민턴 경기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다수의 피험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문항은 승부조작 민감도가 둔감한 행위임을 나타내고, 개별적으로 비윤리

적 행동에 대한 다수의 문항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피험자는 승부조작 민감도가 둔감한 피험자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다수의 피험자들이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문항은 승부조작 민감도가 민감한 행위이며, 개별적으로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다수의 문항에서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피험자는

$$\Delta \hat{b} = \hat{b}_F - \hat{b}_R$$

$$S_{\Delta \hat{b}} = \sqrt{S_F^2 + S_R^2}$$

(공식 1)

$$d = \frac{(b'_f - b_r)}{SE_{(b'_f - b_r)}} = \frac{\Delta \hat{b}}{S_{\Delta \hat{b}}}$$

$\Delta \hat{b}$  = 참조집단과 연구 집단의 민감도 값에 대한 차이

$S_{\Delta \hat{b}}$  =  $\Delta \hat{b}$ 에 대한 표준오차

승부조작 민감도가 민감한 피험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 집단 간에 윤리적 민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차별기능문항방법(DIF:Differential Item Functioning)을 적용하였으며, 사용한 공식은 <공식 1>과 같다.

위 공식에서 계산된  $d$ 값은  $z$ 분포를 가정한다는 조건하에 유의 수준을 검증하였으며,  $z$ 분포의 신뢰구간은 95%로  $d$ 값이  $\pm 1.96$  이상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Lard, 1980). 예를 들어 연구 집단이 지도자 집단이고 참조집단이 선수 집단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d$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선수집단(참조집단)이 지도자 집단(연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부조작에 대해 민감한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d$ 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지도자 집단(연구 집단)이 선수집단(참조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부조작에 대해 민감한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전민수, 박재현, 최창환, 2017).

### III. 연구결과

#### 1. 승부조작 문항별 응답의 빈도분석 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중·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선수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배드민턴 경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을 기반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윤리적 민감도를 조사하였다.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윤리적 민감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의 집단별 빈도분석 결과에 의하면 114명의 지도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로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문항은 4번 문항(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73명(64.0%)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도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로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문항은

표 3. 승부조작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빈도(%)

문항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지도자	선수	전체	지도자	선수	전체
1	3 2.6%	3 0.9%	6 1.4%	111 97.4%	324 99.1%	435 98.6%
2	12 10.5%	28 8.6%	40 9.1%	102 89.5%	299 91.4%	401 90.9%
3	10 8.8%	28 8.6%	38 8.6%	104 91.2%	299 91.4%	403 91.4%
4	73 64.0%	239 73.1%	312 70.7%	41 36.0%	88 26.9%	129 29.3%
5	2 1.8%	7 2.1%	9 2.0%	112 98.2%	320 97.9%	432 98.0%
6	26 22.8%	20 6.1%	46 10.4%	88 77.2%	307 93.9%	395 89.6%
7	37 32.5%	60 18.3%	97 22.0%	77 67.5%	267 81.7%	344 78.0%
8	1 0.9%	2 0.6%	3 0.7%	113 99.1%	325 99.4%	438 99.3%
9	1 0.9%	3 0.9%	4 0.9%	113 99.1%	324 99.1%	437 99.1%
10	5 4.4%	1 0.3%	6 1.4%	109 95.6%	326 99.7%	435 98.6%
11	19 16.7%	9 2.8%	28 6.3%	95 83.3%	318 97.2%	413 93.7%
12	16 14.0%	2 0.6%	18 4.1%	98 86.0%	325 99.4%	423 95.9%
13	8 7.0%	4 1.2%	12 2.7%	106 93.0%	323 98.8%	429 97.3%
14	10 8.8%	2 0.6%	12 2.7%	104 91.2%	325 99.4%	429 97.3%
15	44 38.6%	118 36.1%	162 36.7%	70 61.4%	209 63.9%	279 63.3%

8번 문항(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할 수 있다)과 9번 문항(협회임원에게 부탁하여 대진 혹은 경기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113명(99.1%)으로 나타났다. 선수 집단 327명 중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로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문항은 4번 문항(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39명(73.1%)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로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문항은 10번 문항(경기력 향상을 위해 규정에 위반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26명(99.7%)으로 나타났다. 전체집단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빈도와 비율로 ‘할 수 있다’ 고 응답한 문항은 4번 문항(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312명(70.7%)이었으며,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로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문항은 8번 문항(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할 수 있다) 438명(99.3%)으로 나타났다.

표 4. 승부조작 윤리적 민감도 분석결과

문항	지도자			선수			전체		
	민감도 (logit)	표준오차	민감도 순위	민감도 (logit)	표준오차	민감도 순위	민감도 (logit)	표준오차	민감도 순위
1	0.97	0.36	4	0.95	0.32	5	1.03	0.23	3
2	-0.13	0.19	9	-0.53	0.12	11	-0.3	0.1	11
3	0.03	0.20	7	-0.53	0.12	11	-0.26	0.1	10
4	-2.42	0.15	15	-3.90	0.12	15	-3.26	0.09	15
5	1.30	0.46	3	0.43	0.21	8	0.76	0.19	5
6	-0.83	0.14	12	-0.28	0.13	10	-0.41	0.09	12
7	-1.22	0.13	13	-1.20	0.09	13	-1.09	0.07	13
8	1.92	0.67	1	1.18	0.38	2	1.48	0.33	1
9	1.92	0.67	1	0.95	0.32	5	1.3	0.29	2
10	0.57	0.28	5	1.58	0.53	1	1.03	0.23	3
11	-0.53	0.16	11	0.27	0.19	9	-0.02	0.12	9
12	-0.37	0.17	10	1.18	0.38	2	0.29	0.14	8
13	0.20	0.22	6	0.77	0.28	7	0.57	0.17	6
14	0.03	0.20	7	1.18	0.38	2	0.57	0.17	6
15	-1.44	0.12	14	-2.05	0.08	14	-1.71	0.07	14

표 5 지도자와 선수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

문항	지도자		선수		d	df
	민감도 (logit)	표준오차	민감도 (logit)	표준오차		
1	0.97	0.36	0.95	0.32	0.042	
2	-0.13	0.19	-0.53	0.12	1.780	
3	0.03	0.20	-0.53	0.12	2.401	a
4	-2.42	0.15	-3.90	0.12	7.705	a
5	1.30	0.46	0.43	0.21	1.720	
6	-0.83	0.14	-0.28	0.13	-2.879	b
7	-1.22	0.13	-1.20	0.09	-0.126	
8	1.92	0.67	1.18	0.38	0.961	
9	1.92	0.67	0.95	0.32	1.306	
10	0.57	0.28	1.58	0.53	-1.685	
11	-0.53	0.16	0.27	0.19	-3.221	b
12	-0.37	0.17	1.18	0.38	-3.723	b
13	0.20	0.22	0.77	0.28	-1.601	
14	0.03	0.20	1.18	0.38	-2.678	b
15	-1.44	0.12	-2.05	0.08	4.230	a
전체	1.18	0.18	1.43	0.13	-1.126	

## 2.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의 윤리적 민감도 분석결과

〈표 4〉는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승부조작 윤리적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배드민턴 경기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윤리적 민감도를 문항반응이론의 Rasch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4〉를 살펴보면, 지도자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8번 문항(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할 수 있다)과 9번 문항(협회임원에게 부탁하여 대진 혹은 경기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의 행동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번 문항(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집단의 경우에는 10번 문항(경기력 향상을 위해 규정에 위반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의 행동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둔감한 행동은 지도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4번 문항(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집단을 살펴보면, 8번 문항(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할 수 있다)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번 문항(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에 둔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결과(차별 기능문항)

〈표 5〉은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집단의 특성에 따른 승부조작 윤리적 민감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도자(a)와 선수(b) 집단 간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는 Rasch모형 기반의 차별 기능문항(diff)으로 분석하였다.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5개의 비윤리적 행동 중 7개의 행동에서 민감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문항으로 산출된 7개의 비윤리적 행동 중 3번 문항(동료의 진학을 위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4번 문항(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5번 문항(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고의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지도자 집단이 선수집단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번 문항(보상과 관계없이 경기에서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11번 문항(아무런 이유 없이 경기에서 기권할 수 있다), 12번 문항(경기 전 의도적으로 상대팀 대진을 흔쳐볼 수 있다), 14번 문항(경기 전 상대후배에게 패배를 강요할 수 있다)에서는 선수집단이 지도자 집단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전체 민감도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d=-1.126$ )를 나타내지 않아 두 집단 간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배드

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이 경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 중 어떠한 행동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지도자와 선수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배드민턴 경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들에 대해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윤리적 민감도를 분석하였으며,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분석 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도자의 경우 8번 문항(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할 수 있다)과 9번 문항(협회임원에게 부탁하여 대진 혹은 경기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의 행동에 대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판, 협회임원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자들이 승부조작 행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디어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이 보고됨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김중환, 손진웅(2016)과 김한주, 김성훈(2012)의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스포츠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들이 미디어를 통해 폭로됨으로써 스포츠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며,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선수집단의 경우에는 10번 문항(경기력 향상을 위해 규정에 위반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의 행동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2017년까지 시행하였던 지정용품 사용제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초등부와 중등부를 대상으로 라켓과 셔를을 지정하였으며, 해당제품만 사용토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선수들이 장비 규정위반에 민감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두 집단 모두 4번 문항(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에는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팀 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둔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진학을 돕는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전 선수가 아닌 후보 선수를 출전시켜 경기를 진행하는 것 또한 승부조작 중 하나로 이미 농구에서 사례가 나온바 있다(한겨레, 2015). 이러한 인식은 배드민턴 종목뿐만이 아닌 스포츠 전체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민수, 박재현, 최창환(2017)의 연구에서 성인운동선수, 국내외 체육학자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선 통과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를 출전시키는 행위’에 대해 승부조작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경기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었다.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15개의 행동 중 7개의 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나,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d=1.126$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에게 지도자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몇 가지 행동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지도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이 불완전한 시기의 청소년기 선수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동일(2017)은 지도자의 높은 윤리의식은 선수들의 윤리적, 도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었으며, 서충진, 고영완(2017)은 스포츠 지도자의 역할은 스포츠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윤리적 행동양식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스포츠윤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고 보고하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 V. 결론

이 연구를 통해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문항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로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문항은 4번 문항 ‘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70.7%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로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문항은 8번 문항 ‘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할 수 있다’ 99.3%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윤리적 민감도를 확인한 결과, 지도자 집단은 8번 문항(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할 수 있다)과 9번 문항(협회임원에게 부탁하여 대진 혹은 경기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번 문항(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집단은 10번 문항(경기력 향상을 위해 규정에 위반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4번 문항(예선통과 확정 후 남은 경기에 후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자 집단과 선수 집단 간의 윤리적 민감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의 비윤리적 행동 중 7개의 행동 중 3번 문항, 4번 문항, 15번 문항은 지도자 집단이 선수집단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번 문항, 11번 문항, 12번 문항, 14번 문항은 선수집단이 지도자 집단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d=-1.126$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들의 경기상황에서의 윤리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지도자와 선수들의 승부조작 및 윤리적 교육실태 현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방지교육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나아가 다른 종목에서도 종목별 경기상황을 고려한 문항들을 기반으로 선수들의 윤리적 수준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목별 맞춤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범 (2012). 중고등학교 스포츠 지도자의 감성적 리더십이 선수정서, 팀분위기 및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3), 75-89.
- 김성일 (2019). 학생선수가 인식하는 지도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도덕적 정체성 및 스포츠 도덕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58(4), 411-421.
- 김용구 (2020). 핸드볼 학생선수가 지각하는 지도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일탈적 과잉동조 및 운동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과학회지*, 9(3), 195-212.
- 김종환, 손진웅 (2016). 미디어 노출을 통한 스포츠 승부조작의 미디어 프레임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5(3), 149-159.
- 김한주, 김성훈 (2012).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 보도의 미디어 구성. *한국체육과학회지*, 51(1), 91-100.
- 박선영, 장운창 (2021). 국내 배드민턴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 수준. *스포츠사이언스지*, 39(3), 395-402.
- 박성주 (2016). 윤리적 관점에서 본 승부조작. *한국체육과학회지*, 55(4), 13-22.
- 박찬민, 김희연 (2013).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주체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및 태도변화.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6(2), 47-68.
- 서충진, 고영완 (2017). 엘리트스포츠 지도자윤리 정립을 위한 세가지 윤리학적 접근. *한국체육과학회지*, 26(4), 1-13.
- 원형진 (2014). 태권도 지도자의 멘토링 기능이 자기효능감과 선수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도학회지*, 16(1), 41-53.
- 이상대 (2021). 스포츠 윤리 관점에서 본 승부조작 현실과 교육적 방안. *산업기술연구논문지*, 26, 9-17.
- 이승훈 (2017). 금전 및 인적네트워크 개입여부에 따른 스포츠승부조작의 사례 분류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 임정우 (2018). 국내 하키 지도자 및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인식의 민감도. *스포츠사이언스*, 35(2), 149-159.
- 전민수, 박재현, 최창환 (2017). 어떤 행위를 스포츠 승부조작으로 인식하는가?: 승부조작 행위에 대한 인식의 민감도. *한국체육과학회지*, 26(1), 1175-1191.
- 전민수, 이지용, 윤효준 (2020). 태권도 선수들의 윤리교육 여부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국기원태권도연구*, 11(1), 1-18.
- 정우진, 권상수 (2007). 상업적 유소년스포츠클럽 참여동기와 선택속성이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383-392.
- 정혁 (2005). Rasch 모형: 서열척도 분석의 대안적 방법. *코칭능력개발지*, 7(3), 133-141.
- 채승일 (2014). 스포츠의 딜레마: 고의패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8(1), 35-44.
-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93054.html](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93054.html)
- 한동일 (2017). 덕 윤리 관점에서 본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의식과 가치관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Park, J. H., Choi, C. H., & Cho, E. (2016). Preliminary study to detect match-fixing: Benford's law in badminton rally data.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1, 64-77.

Rasch, G. (1960). *Probabilistic models for some intelligence and*

*attainment tests*.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Trevino, L. K., Hartman, L. P., & Brown, M. (2000). Moral person and moral manager: How executives develop a reputation for ethical leadership.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2(4), 128-142.